

“국제구호, 불교계 협의체 필요하다”

〈불교평론〉 61호 ‘한국불교 국제구호’ 특집 이용권 관장 구호활동 과제와 방향 제언

동남아 지역 주민 서비스 사업에 머물러 있는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협력협의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특집으로 마련된 〈불교평론〉 61호에서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현황과 과제’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 관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는 1990년대 5개에서 2010년 이후 35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에 국한돼 있다. 이 관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대부분 의식주 해결 수준의 자선사업에만 머물러 있다.

이 관장은 “한국불교계는 대부분 국내복지사업의 부가활동으로 국제구호를 병행하고 있다”며 “자선행사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서구 단체들이 현지 주민단체와의 파트너십으로 구호사업을 진행하며, 직업교육 등 지역사회의 구조변화에 나서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선사업 위주의 구호활동은 해당국가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저해하고, 또 불교적 가치를 살리는 고유의 활동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관장은 “이는 많은 불교계 구호단체들이 국제구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초기 재정확보나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 현장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또 국내 단체들 간에도 연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가칭) ‘불교 국제개발 협력협의회’ 구성을 가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35개 단체, 동남아 자선사업 위주 서구단체는 주민단체와 파트너십 이웃종교는 연합기구 구성 체계화

이 관장은 “2011년 더프라미스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과정’을 공개하고 2013년 더프라미스와 로터스월드가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를 구성, ‘현지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것이 좋은 예”라며 “불교 구호단체들의 역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인 협력과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체 위주의 기독교 구호

〈불교평론〉 ‘국제구호’ 특집에는 이웃종교계의 국제구호 현황도 함께 실렸다. 국제구호의 역사가 깊은 기독교계는 이러한 불교계와 달리 이미 다양한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가톨릭은 국제카리타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계 20여개 국제 카리타스 중 하나인 한국카리타스는 2004년 방글라데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장기복구 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 수도회 22%, 사도직단체 18%,가 참여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해외원조사입 822개에 총 406억 여원을 지원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구호활동이 진행되기에 초기 사업진행이 원활하며 구호단체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종현 한국카리타스인터네셔널 사무총장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해외원조는 22년째로 매년 해외원조가 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연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하지만 그 중심축이 되는 것이 한국가톨릭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가톨릭은 연 1회 ‘해외원조 주일’을 시행하고 신자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 개신교도 개발 교회에서 진행되는 자선사업과 별개로 재난재해 시에는 연합

재해구호기구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승렬 목사의 ‘한국 개신교회의 해외재해구호 활동’에 따르면 개신교계는 필리핀 하이에 태풍피해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교회연합(CCIK)의 주도로 50여개 이상의 교단과 NGO단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재해구호기구를 결성해 12억원 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지역구호 사업시 유관단체와 연계해 농사훈련, 시범농장 경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기구에서는 공동으로 해외구호 매뉴얼을 개발해 선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이승렬 목사는 “구호사업 중 특히 재해구호사업은 종교적인 가치관을 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기에 연합활동이 활발하다”며 “생태계 보전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분야에서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구호’ 특집에서는 임연태 금강신문 편집주간이 ‘해외구호활동에 나서는 한국의 불교종단’을 정리했으며, 지구촌공생회(김중만), JTS(이학중), 로터스월드(정성운), 해외불교단체(이혜숙) 등의 활동을 밑거름해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교종단의 국제구호는 조계종의 아름다운동행과 사회복지재단, 태고종의 나누우리, 천태종의 나누며 하나되기, 진각종의 JGO 등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교육과 한국문화알리기 분야서 전개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전통문화, 디자인을 입다

문화사업단, 2차 문화콘텐츠 개발

사물·사천왕·전각·탑 등서 전통 문양 패턴 추출해 디자인

사물·사천왕·전각 등 불교문화재가 현대적 디자인을 입고 대중에 선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3월 4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2차 문화콘텐츠 개발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디자인 개발 사업은 전통문화콘텐츠 활용과 템플스테이 패밀리브랜드 ‘아생여당’ 캐릭터 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사천왕, 사물, 탑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패턴 개발 70종 △사찰의 건축물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개발 147종 △아아, 생생, 여여, 당당을 컨셉으로 한 캐릭터 응용동작 개발 83종이 새롭게 개발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발을 맡은 전통문화콘텐츠 활용 부분은 사물, 사천왕, 탑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모사도를 작성한 뒤 패턴을 추출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아아, 생생, 여여, 당당 템플스테이 캐릭터는 시놉시스와 성격이 추가됐다. 83종의 다양한 응용동작들을 통해 캐릭터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됐으며 △프로그램 △앱블럼 △이모티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디자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발한 전통 문화콘텐츠 개발 디자인.

개발은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국불교가 지닌 우수성을 내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개발된 전통문양 콘텐츠, ‘아생여당’ 응용동작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5월 한국불교문화의 고유한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정체성 확보 및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불교문화상품 전문 브랜드 본디나(VONDINA)를 런칭한 바 있다.

당시 본디나는 사찰 15곳의 꽃살문, 단청에서 160여개의 패턴 디자인을 추출·개발했으며 수첩, 여권케이스, 네임택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상품을 선보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파견·하청 등 노동자 피해 확대 우려”

노동위, KTX승무원 판결 유감 성명

KTX 승무원 해고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위는 여성승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철도유류에 소속돼 있어 코레일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2004년 입사시 코레일이 직접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실시한 점, 이후 근무처가 철도유류와 관광레저로 이동될 때도 코레일의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승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도급, 하청, 파견과 외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KTX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펼칠 직접고용 운동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지관 스님 문자사리 ‘가산대사람’ 15권 발간

‘심로절’(心路絶)부터 ‘엄흔’(嚴欣)까지 총 6865개 표제어 수록

前조계종 총무원장 가산(伽山) 지관 스님(1932~2012)이 설립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최근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람> 제15권을 발간했다.

<가산불교대사람>은 “지관 스님이 남긴 위대한 문자(文字) 사리”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불교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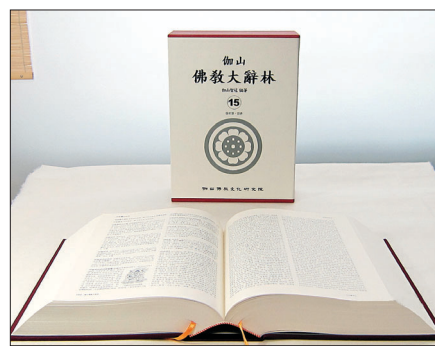
15권에는 ‘심로절’(心路絶)부터 ‘엄흔’(嚴欣)까지의 총 6865개 표제어가 수록됐다. 대표항목으로는 십이연기(十二緣起), 십지(十地), 쌍계사(雙溪寺), 아뢰야식(阿賴耶識), 아미타경(阿彌陀經), 아미타불(阿彌陀佛), 아비달마(阿毘達磨), 아트만(Atman), 아함(阿含), 약사여래(藥師如來) 등이 있다. 15권은 원고지 매수만 2만 162매이며 지관 스님이 써놓은 원고를 토대로 전공별 전문연구자 40여명이 추가 항목 발굴과 구성, 편수와 교열, 윤문 등을 했다. 연인원은 14600명에 달한다.

지관 스님은 1982년 “한국정신사의 자존을 일깨우고, 나아가 한국의 불교술어의 일차 결집이라는 사명 아래 소중한 결과물이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불교대사전 편찬원론’을 짓고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1991년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15권 원고 2만매... 전문가 40명 참여 2022년까지 총 22권 편찬 계획

설립해 1999년부터 1~2년에 한 권꼴로 <불교대사람>을 출간했다.

지관 스님은 전체 20권으로 기획된 <불교대사람>의 완간을 보지 못한 채 제13권 작업을 끝으로 2012년 1월 입적했다. 하지만 마지막 ‘증’ 항목까지 15만개에 달하는 주요 표제어에 대한 원고를 만년필로 원고지에 직접 써서 마무리해둔 상태였다.



최근 발간한 ‘가산대사람’ 15권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2019년까지 본격 20권을 펴내고 2022년 색인 및 연표부, 보유권 2권을 출간해 총 22권의 ‘가산불교대사람’ 편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항심(恒心)’으로 고군분투하라 항심이 중생을 이익케 하는(饒益衆生) 원력(願力)과 함께할 때, 세간(世間)은 불멸(不滅)의 공덕을 얻는다’고 하신 가산 지관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변함없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화 제목 ‘갯바위’ 인데 선정·폭력성 다분

시사회 참석한 대구불교계 공분... 제목 수정 요구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아 제작한 영화 ‘갯바위’가 선정성 논란이 일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는 지자체에서 6억원을 지원받아 영화 ‘갯바위’를 제작 지난 2월 25일 대구 만경관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를 관람한 지역 불교계 측은 영화 제목과 내용은 달리 선정성과 폭력성이 농후한 내용으로 채워져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팔공산 갯바위 선본사(주지 성본)는 현재 예산을 지원한 경산시, 대구시, 경북도청과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에 각각 제목 수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선본사 주지 성본 스님은 “처음에는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찍겠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고 하니 계속 미뤘다”며 “결국 관할시청에서 예산지원을 했다고 해서 촬영을 허가해 주었는데 시사

회를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내용이 갯바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해 불편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갯바위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 영화 제목 수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제목 수정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산시 문화관광과는 “지역에서 최초로 제작한 영화인만큼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제목에 대해서는 제작사 측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를 제작한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는 “영화를 영화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정병원 대구경북지회 실무 부회장은 “영화가 우려만큼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지 않다”면서 “수일 내에 선본사 스님들을 찾아 회고 제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불 다

주

제주 월 위

제주 월

월

위

월

불

불

불